

# 전남도, 덴마크 터빈기업과 산업생태계 구축 전격음

덴마크 터빈기업 공장 유치 협의  
베스타스, 테스크포스팀 구성 제안  
국내 투자 시기 고려 후 최종 결정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덴마크의 풍력발전기 터빈 기업과 함께 도내 공장 설립을 통한 투자 실현을 협의했다.

전남도는 덴마크 풍력발전기 기업 베스타스와 도내 해상풍력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터빈공장 설립 등 산업생태계 구축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회가 지난 12일 도청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신남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도 관계자와 베스타스 모튼 부회장, 칼슨 부사장, 스단 부사장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베스타스 시장조사단의 이번 방문은 한국시장에 대한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덴마크의 풍력발전기 터빈 기업과 함께 도내 공장 설립을 통한 투자 실현을 협의했다. /전라남도

투자 검토를 위한 시장조사 목적으로 이뤄졌다.

모튼 부회장은 전남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 현황과 도내 공장 부지 및 투자 여건 등에 대해 질문하고, 전남도와 베스타스 간 해상풍력 협력 증진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했다.

김신남 국장은 "전남은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뿐만 아니라, 영광, 진도,

여수 등에 6.5G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가 나 있다"며 "특히 덴마크 'COP', 캐나다 '노스랜드', 영국 'GIG' 등 해외 우수 기업과 SK E&S, 한화건설,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 등이 참여해 사업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에 터빈공장 설립 시 전북과 울산에 접근하기 쉽다는 지리적 장점도 있다"며 "전남이 터빈공장 설립의 최적지"라

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국장은 "전남도는 해상풍력 단지와 최근접 수출입 항만인 목포신항과 그 배후부지를 해상풍력 클러스터 중심축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베스타스 등 국내외 터빈사가 전남에 공장을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타워·블레이드 등 협력업체를 육성해 단계적으로 도내 생산 부품 사용을 확대하길 기대

한다"며 "터빈공장 설립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모튼 부회장 등 베스타스 시장조사단은 실무협의를 마치고 목포신항을 찾아 터빈공장 부지 등 투자 여건을 살핀 후 "목포신항의 접근성 및 부지 여건 등이 터빈공장 부지로 손색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베스타스는 이번 시장조사 결과와 국내 터빈 발주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투자 시기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6월 해상풍력, 수소산업 등 재생에너지 전 부문에서 덴마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덴마크 대사관, 베스타스, 씨에스윈드와 해상풍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터빈 공장설립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곡성군,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속도낸다

섬진강 기차마을 연계 체류형 관광지  
이달 중순부터 도로사업 본격 착공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사업부지 29만 7000㎡에 대한 보상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차마을 인근에 위치한 근린공원인 충의공원 내에 동화적인 콘텐츠 도입한 정원을 만들어 일대를 관광 블록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지에 지역민들의 쉼터 공간도 조성해 주민들도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곡성군은 동화정원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전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얼마 전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 사업을 발주했다. 기반시설인 도로 사업은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곡성군이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충의공원 내에는 승법유물 산포지 구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나 동화정원 조성 사업 승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화정원 또한 정해박해 지역인 승법유물 산포지 구역에 대한 시굴 조사도 진행 중인데 이 역시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 착수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곡성군은 본격적인 시설 공사를 하기 전 먼저 충의공원 일원을 다양한 색과

향기로 가득한 꽃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꽃단지 조성 외에도 포토존 등을 설치해 충의공원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이면 충의공원에 형형색색 꽃들의 향연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며 "앞으로 동화정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 광주시, 온·오프라인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관광 경쟁력 확보 총력

광주시가 광주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코로나19 속에서도 의료관광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의료관광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광주메디헬스산업전에서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를 비롯, 전남대병원, 뷰티스맑은피부과의원, 전남관광재단 등 광주·전남권 병원과 의료관광 9개 기관이 참여한 의료관광 공동홍보관을 구성해 광주 특화의료기술과 의료관광상품 등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이와 함께 남부대 치유향기상용화산업단이 향기를 통해 정신과 육체적 치유효과를 입증하는 치유향기체험관을 선보여 치유향기 상용화와 미래 광주먹거리산업으로 육성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외국인 환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 국내 거주 외국인 30여명이 전남대치과병원, 조선대치과병원, 뷰티스맑은피부과, 스파소베 등에서 의료체험을 하는 '광주다움 메디컬투어'를 개최하는 등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친화프로그램도 선보였다. 특히, 난임치료 권위자인 광주 씨엘병원 최범채 원장은 몽골 울란바토르 의사들이 진행하는 '닥터스톡(Dotter's Talk)'에 참여해 '난임 극복을 위한 치료법'을 화상으로 소개, 몽골 현지 의료진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시는 또 메디헬스산업전과 연계해 메디웰광주 온라인엑스포를 동시개최해 광주 의료기관과 특화 의료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생체의료 소재부품 등 광주 의료산업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업체 소개와 함께 제품과 기술들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이밖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함께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신규 인력 양성 교육과 대구의료관광진흥원 김승호 본부장의 대구의 의료관광성공전략에 대한 강연도 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 올해 첫 청송 황금사과 '황금진' 출하

이마트·마켓컬리서 판매

청송군(군수 윤경희)과 대구경북농업융합청송경제사업장(장장 김용근)은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2021년산 청송 황금사과(품종명 : 시나노 골드)를 '이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마켓컬리'를 통해 첫 출하한다고 밝혔다.

청송황금사과는 골든딜리셔스에 천추를 교배하여 육성한 품종으로 황금빛 과피에 아삭한 육질, 높은 당도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청송군은 사과 주산지의 명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2018년부터 황금사과를 특화브랜드로 집중육성하고 있으며, 유통시장 선점을 위해 특화청에 청송황금사과브

랜드 '황금진'과 '황금사과'를 상표 등록했다. 특히 청송황금사과는 젊은층들에게 인기가 많아 농가에도 고수익을 안겨 주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2021년산 청송 황금사과 론칭 기념행사'에 참석한 윤경희 청송군수는 황금사과가 선별·포장 작업을 거쳐 출고되는 농업융합청송 APC 현장을 둘러보며,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드높이고, 유통시장에 대응할 특화브랜드로 육성중인 청송황금사과를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선제적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송(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영양군

## '노인의 날' 유공자 표창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3일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영양군 지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노인의 날 유공자표창은 평소 지역사회 회회생과 봉사정신으로 귀감이 된 어르신에게 수여해 드리고 있으며, 올해 수상자로는 경북도지사 표창 김봉기(입암면)씨, 군수표창 오상도(영양읍)씨, 김주택(청기면)씨, 우흥석(일월면)씨, 남상오(수비면)씨, 사태진(석보면)씨, 대한노인회장 표창 권재철(영양읍)씨, 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 표창 금태연(청기면)씨가 수상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광양시의회, 수어댐 녹조 대책 마련 촉구

수중 생태계 파괴 초래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13일 광양 진상면 수어댐의 녹조 발생을 우려하면서 빠른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수어댐 녹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8월 말부터 수어댐 전 유역에 녹조현상이 나타나 수중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댐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어댐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양시민의 건강도 우려되는 심각한 문제지만 수자원공사는 '녹조가 고온, 부영양화, 정체된 수역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회는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광양시의회의 현장방문 및 시정조치 요구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수돗물 원수는 심층에서 취수해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1978년 완공한 수어댐은 광양 전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국가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지역의 중요한 수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광양시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즉시 녹조를 제거하고 생태계 보호와 식수원을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김용환 기자 jjaacecom@